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2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세례 요한의 메시지 (마 3:1-12)

A Message by John the Baptist (Matt. 3:1-12)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무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전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중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t is God who reveals His word. However, He kept silent for over 400 years since the death of Malachi the prophet. After that time, there was no prophet. And the man, who broke the silence and appeared during the miserable period of the time, was John the Baptist.

1.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1절).
세례 요한은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는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무리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였고,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삶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을 했던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친척 동생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입니다. 놀라운 운명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라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받은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복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뛰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눅 1:44).

1.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In those days John the Baptist came, preaching in the desert of Judea and saying,” (v. 1).
John the Baptist started his mission in the wilderness where there was no one living, or around. Nevertheless, hoards of people came crowding to him from all Judea and around the Jordan River, including Jerusalem.

Upon hearing the sermon of John the Baptist, crowds of people confessed to their sins and were baptized in the Jordan River.

The mission of John the Baptist prepared the way for Jesus to begin His work. The entire life of John the Baptist, whose father was a high priest named Zacharias and mother Elizabeth, was to focus on his mission to prepare the way for Jesus. And a younger relative on Elizabeth’s side was Mary who was the mother of Jesus. Fate works in a wonderful way for them. The mission of John the Baptist to prepare the way for Jesus was received before Jesus was born. It is written that John in the womb leaped for joy when Mary, conceived with Jesus, came near (Luke 1:42).

2.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1절).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사 55:7).
모든 불의한 일들,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2. Repent of your sins!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Matt. v. 1).
Breaking the silence of 400 long years, God said first,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through John the Baptist. ‘Repent’ means our returning back to the Lord. We must first of all repent of our sins in order to turn and come back to the Lord.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an evil man his thoughts. Let him 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mercy on him, and to our God, he will freely pardon” (Is. 55:7).

The fact that we forsake evil things and sinful thoughts, and return to the Lord means ‘repentance’. In this way alone, God will receive our repentance and will have mercy on us, and freely pardon us.

3.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2절).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명자로 태어나, 사명자로 살다가, 사명자로 죽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은 과연 사명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무도 가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3.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v. 8).
The reason why we must quickly repent of our sins is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Now, we must hear the voice of John the Baptist calling in the desert. In light of seeing John the Baptist who was born as a person with a calling, and who lived as a person with a calling, we must repent indeed of the life we are living. Because, the kingdom of heaven is very nea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어떠한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의미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심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In front of our Almighty God, who created all things in the universe with His Word, and His unending love upon us forever, whatever we do, we must do it for the name of Jesus.
Our life and work on the earth must be to spread the Gospel and obey God’s Word until the time of Jesus’ return.
By living in Jesus and for Jesus like John the Baptist, I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enjoy the heaven’s joy, peace, and happiness.

제11대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제직회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우리교회 제11대 장로후보 20명 선출을 위한 제직회와 오늘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2층에서 열린다.

서울교회 제직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후보가 선출되도록 기도하고 투표하기 바란다.

제직들은 오늘 투표용지 교환권 수령토록

-3부 예배 후 찬양예배 전까지 2층 로비에서-

오늘 찬양예배 직후 실시되는 제11대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제직회에 참석할 제직(교역자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및 당회가 인정하는 무임장로 포함)들은 3부 예배 후 찬양예배 전까지 2층 로비에서 제직자격 명부확인 후 배부되는 투표용지 교환권을 수령하기 바란다.

아울러 모든 제직들은 1,2,3부 각 예배 후 배부되는 사진이 게재된 후보자 명단을 수령하여 장로후보로 적합한 분을 미리 기도 중에 준비하여 오기 바란다.

(기표는 각 제직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10명만 하게 되고 득표순에 따라 20명을 공동의회에 추천하게 된다.)

2012년 4월 학습·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4월 22일 주일 찬양 예배시 2012년 두번째 학습·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짝수달(격월) 3째 주 수요일 1,2부예배시에 학습·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2012년도는 4월, 10월은 주일 찬양 예배시 시범시행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학습·세례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부 세례준비반(607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례준비반 인터넷 카페(서울교회 홈페이지⇒e공동체⇒세례준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번 세례/입교/학습/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 유광숙, 이경진5, 이미숙8, 이창기, 조봉관, 전시경, 홍재현 계 7명
- 입교자 : 김준일1, 박상협 계 2명
- 학습자 : 김기남, 김동범1, 김영표, 김용주2, 김주경1, 두상순, 박예주1, 배수진1, 이루리2, 이상철2, 이원일, 이현우2, 정계순, 정상준, 정지숙1, 진종훈, 최규리, 최보희, 최윤진 계 19명
- 유아세례자 : 김하준, 김보민, 김종현3, 김준혁2, 김하민, 김하준1, 서은파, 안서현, 오유민, 우정서, 이윤호1, 조예원, 한세아, 계 13명 총 41명

장년부 2주 연속 특강

오늘·다음주(5월6일) 1부예배 후



김철홍 목사 (장년부 지도)

장년부에서는 오늘과 다음 주일에 특강을 한다.

오늘은 "바울은 왜 자신을 여성으로 표현하였는가?", 다음 주일(5월 6일)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주 연속 특강을 한다. 강사는 김철홍 목사가 서며, 1부 예배 직후 본당에서 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우리 다락방 자랑' 기사 모집

순례자는 봄을 맞아 다락방의 따뜻한 이야기,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소개하고, 아름다운 사연등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원고를 제출하실 분은 사무국이나 이메일 yoolulu@hanmail.net로 보내시면 된다.

- 서울교회 엘리베이터 - 이렇게 이용합니다

교통약자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휠체어 등의 신체보장구를 이용하는 성도와 영유아부 어린이)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양보합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46]

(문 41) 출 33:20말씀과 출 33:11말씀은 상호 충돌하고 있는 것이지요?

(답) : 성경은 하나님의 나타남 영광을 보는 것과 그와 대면하거나 개인적 대화를 나누는 것 사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요 1:18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 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안에 있는 독생 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어두운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했습니다.(고후 4:6)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 14:9).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육 하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얼굴을 보이셨고 영광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자기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가운데서 여호와와 사자가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구름 속에 나타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 시킨 후 광야 길에서 인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봉헌할 때(출 40:34-35)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소에 덮였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은소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 33:11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말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했다는 것은 TV에 나타난 아나운서가 시청자와 마주앉아 대화하듯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출 33:18)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도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했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출 33:20)

그러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딤후 6:16) 하지만 모세에게 특권을 베푸시어 하나님은 자기 등을 보게 하되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출 33:23) 이 하나님은 모세 앞에 지나가시며 은혜와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출 34:6-7) 그러므로 출 33:20과 11절 말씀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고 양면성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다음주 계속)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갓 태어난 인생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생명



이미숙 성도 (14교구)

제가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여만에 너무나 부족한 신앙생활이었지만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찬양예배 시간에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의 축하 속에 세례식을 마치고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일상의 혼돈 속에서도 교회를 다니고부터는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삶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벚꽃의 피고 짐이 아름다운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의 본분을 다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생활이 무엇인지 아무 것도 모르는 저를 새가족 때부터 세례식까지 올 수 있게 여러 부서에서 따뜻한 손길로 이끌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각 부서의 교사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구진영 집사 (9교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세아가 지난 주일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히 지랄 수 있었습니다.

세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저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서툰 엄마라 아이를 키우는데

만 급급하여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데 소홀했습니다.

유아세례를 준비하며 그리고 문답의 시간을 거쳐 세례를 받고 세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 시금 깨달으며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 제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써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아이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겠습니다.

한미음 한가족잔치를 준비하며

다락방 부흥의 시간이 되길



영인수 집사 (11교구 간사)

저희 11교구의 한 마음 한 가족 잔치는 6월2일(토)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에 마칠 예정입니다. 송파구 단일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11교구는 교구식구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장소를 가까운 미사리 경정공원으로 마련하고 늦잠을 자고도 참여할 수 있도록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시간을 또 편히 쉴 수 있도록 오후 3시에 모든 일정을 마치려 합니다.

장소와 시간이 편안하고, 다락방장과 부다락방장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로 많은 교구식구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다락방식구끼리는 형제자매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여 한 형제임을 깨닫고 더욱 모이기에 힘 쓸 것을 다짐하며, 또 이웃 다락방식구들과도 서로 인사하고 친교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즐겁고 신나는 하루가 될 것

입니다.

또한 잔치는 흥이 있어야 합니다. 진행이 좀 서툴러 실수하면 그 실수도 재미있어 하면서 즐겁고 신나며 흥이 넘치는 아름다운 친목과 화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지원과 교구 안수집사님과 권사님, 다락방장님들의 뜨거운 협조로 준비한 잔치이기에 성대한 오찬은 아니지만 맛있는 도시락과 간식을 먹으며 다락방식구끼리 오손도손 정담을 나누는 점심시간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11교구 식구들은 6월2일 10시에 미사리 경정공원으로 아무 부담 없이 가벼운 복장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쁜 마음만 한가득 안고서 찬송 부르며 오시면 가슴이 탁 트이는 공원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들의 친절함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선교사 도고팀 -인도네시아

기도를 통한 하나 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 하는 스스로의 질문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의 그 기쁜 소식... 온 세계에 미치기를 고대하며 마음과 몸은 더욱 바빠집니다.
-〈서광일, 이성일 선교사 기도편지 중〉

현재 인도네시아는 집단테러의 위협에 대한 긴장감이 가득하다. 폭발물이 일반 가정에 배달되어 폭발되는 사건으로 인해 모든 배달물에 주의를 요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두려움과 집단테러의 위협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는 두 배 이상 위험하며 앞선 데 달친 격으로 종교적인 이슈가 더해지면서 종교 갈등으로 인해 그 위험성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교회에서 파송된 서광중, 이성일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선교사들을 안고 계시다는 마음이 듭니다'라고 백을 통해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위협을 이겨내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선교 도고팀은 매주 주일 11시 30분 902호에서 모임을 갖으며,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역사를 위한 기도를 드리며 모임이 시작된다. 선교위원회를 통해 받은 선교사

들의 기도와 더불어 팀원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기도를 통한 하나됨'을 느꼈다. 최금숙 집사(도고팀장)는 "도고는 도고팀만 하는 게 아니기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도고를 하기를 소망한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늘 기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광중·이성일 선교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져 천국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 인도네시아의 교회들과 신학교들과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 동남아시아 성도 신학대학의 신학대학생들을 위하여
- 동남아시아 성도 신학대학의 체플 건립을 위하여
- 선교사들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하여
- 사회 복지관 설립과 자원봉사자들과 프로그램진행을 위하여

최진경 성도 (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비전2020

파주 실로암교회를 다녀와서

김경순집사(3교구)

늦은 봄비가 내리던 지난 21일 토요일 아침, 이삭 선교회(회장 김재승집사님)와 뽕뽕 여전도회(회장 최중희집사님) 그리고 여러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서울교회에서 파송한 노신애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30사단 전차대대 실로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서울교회 국내 선교 행사 중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군대 선교에 민간 선교로 파견한 것과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함께 군 부대에 방문한 것이 처음이라는 것, 군선교 대상 부대가 하위부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군 부대 위문을 간다고 하니, 초등학교 시절 "국군 장병 아저씨께" 위문 편지를 쓰기 위해 고민하던, 어린시절이 생각나, 아련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곧 60여 일 후면, 낯선 또 하나의 이름으로 불려질 '하재상 이병'이 되어 있을 아들 생각에 코 끝이 찡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앞에 계시던 해병대 사단장이셨던 이갑진 장로님의 "서울교회의 입대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군대는 생명



을 걸고 국가와 계약하는 것이므로 군입대 2주 전, 주일 영적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에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내진다는 것과 군교회에 있으면 군생활의 여러 돌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둘째, 군대에서 주어지는 하루! 86,400초를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 피할 수 없어 보내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닌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시간들로 채우기 위해, 예비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면서 나에게도 도전이 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실로암 교회에 도착하여 아들같은 장병들을 보니 마음이 울컥 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린 후, 대대에서

준비한 다과를 들며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후,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나라를 지키려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아멘.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30일(월) 한국장로교정체성위원회 월례세미나, 종교개혁500월례기도회에 참석한다. 5월5일(토) 사랑의 쌀 운동 조찬기도회 설교한다
- 이갑진 장로는 2014년 남아공에서 열릴 세계기독교인회 준비를 위한 한국,미국,영국, 남아공의 실무대표 협조회의 차 5.2~8 까지 케이프타운으로 출장
- 개인전 : 김경미 집사 2012 스와프 전시회 5/4~5/7 코엑스 1층 B홀 Booth G57
- 주간식당 봉사: 리브가전도회(4.29) 제1스데반 (5.6)
- 금주의 식사 : 김영호 집사 박성금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운동모 염가 판매

나눔의 집에 운동모 600점이 있습니다. 이번 각 교구별로 있는 한마음 한가족 잔치를 맞아 운동모가 필요한 교구는 나눔의 집으로 오세요. 운동모를 염가로 드리겠습니다.



장한 어머니상 시상

자녀 셋이상 낳은 가정의 어머니

우리 교회는 국가적으로 인구감소하고 있는 이때에 자녀를 셋 이상 낳은 가정의 어머니-(출산일: 2011년 5월 1일부터~2012년 4월 30일)를 장한 어머니로 선정하고 셋째 또는 넷째 아이의 20년 후에 갖는 장학금 통장을 5월 13일에 시상한다. 해당되는 어머니는 4월 30일까지 교구목사에게 신청바란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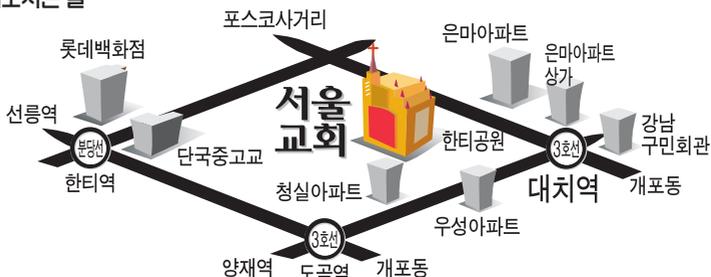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항존직 선거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2. 다락방 모임을 통해 주님의 깊은 인애와 사랑의 교제,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3. 각 교구별로 진행되는 "한 마음, 한 가족 잔치"를 통해 교구가 하나되고 다락방 사역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